본 세미나는 (사)정보경영연구원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민정책포럼
www.thinknet.or.kr
AHNMIN INSTITUTE for Public Policy

안민정책포럼 2022년 하반기 세미나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재정개혁

발표자: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전 교육부 차관)
일시: 2022년 11월 25일 (금)

안민정책포럼 세미나

우리나라 재정에 대한 평가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발전 방향

이 영
younglee@hanyang.ac.kr

한양대학교

2022년 11월 25일

순서

1. 서론
2. 중장기 국제비교를 통한 재정운영 평가 (기술적 통계분석)
3. 재정 구조의 성장 및 분배 효과 (회귀 분석)
4.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

1. 서론 - 접근 방법

- 중장기 데이터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와 규모, 재정지출 구조와 규모복지모형별로 분류된 복지국가들에 대비하여 분석하고
- 재정 구조의 성장 및 분배효과에 대해서 기존 문헌과 최신 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정리하고
- 국가운영의 목표로 설정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Sustainable Welfare States)를 위한 조세 및 재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함.
  - 성장이 국가의 목표가 될 수 없기에 국민 후생을 극대화하는 복지국가를 목표로 설정하고
  - 인기영합적, 근시안적, 단기적 정책으로 확대한 복지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경제 및 사회 위기를 초래할 뿐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추가함.

1. 서론 - 접근 방법 - 계속

- 최적 정책에 대한 보고서의 접근 방식은 후생경제학

$$\underset{Policies}{\text{maximize}}\ SWF \text{ subject to } Constraint$$

- 행태변화, 시장균형, 거시 및 정부재정 균형 등이 감안되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선택한다는 후생경제학 틀을 사용.
- (목적함수) 사회후생 극대화는 성장, 분배, 고용 균형적으로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 (제약조건) 의도만 좋은 정책이 아닌 제약조건들이 감안되어 의도를 달성하는 정책이 바람직
- (선택변수) 재산권/법치주의 - 소득개입 - 거래규제 - 가격규제 - 수량규제 - 공적 소유 이라는 다양한 정책들을 적합하게 사용
- 제도, 역사, 지리,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한 국가별 특징 + 장기 데이터를 이용한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 + 기존 문헌 + 회귀분석 결과
-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 생산성, 요소축적을 이루었고 사회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 조합으로 지속가능한 복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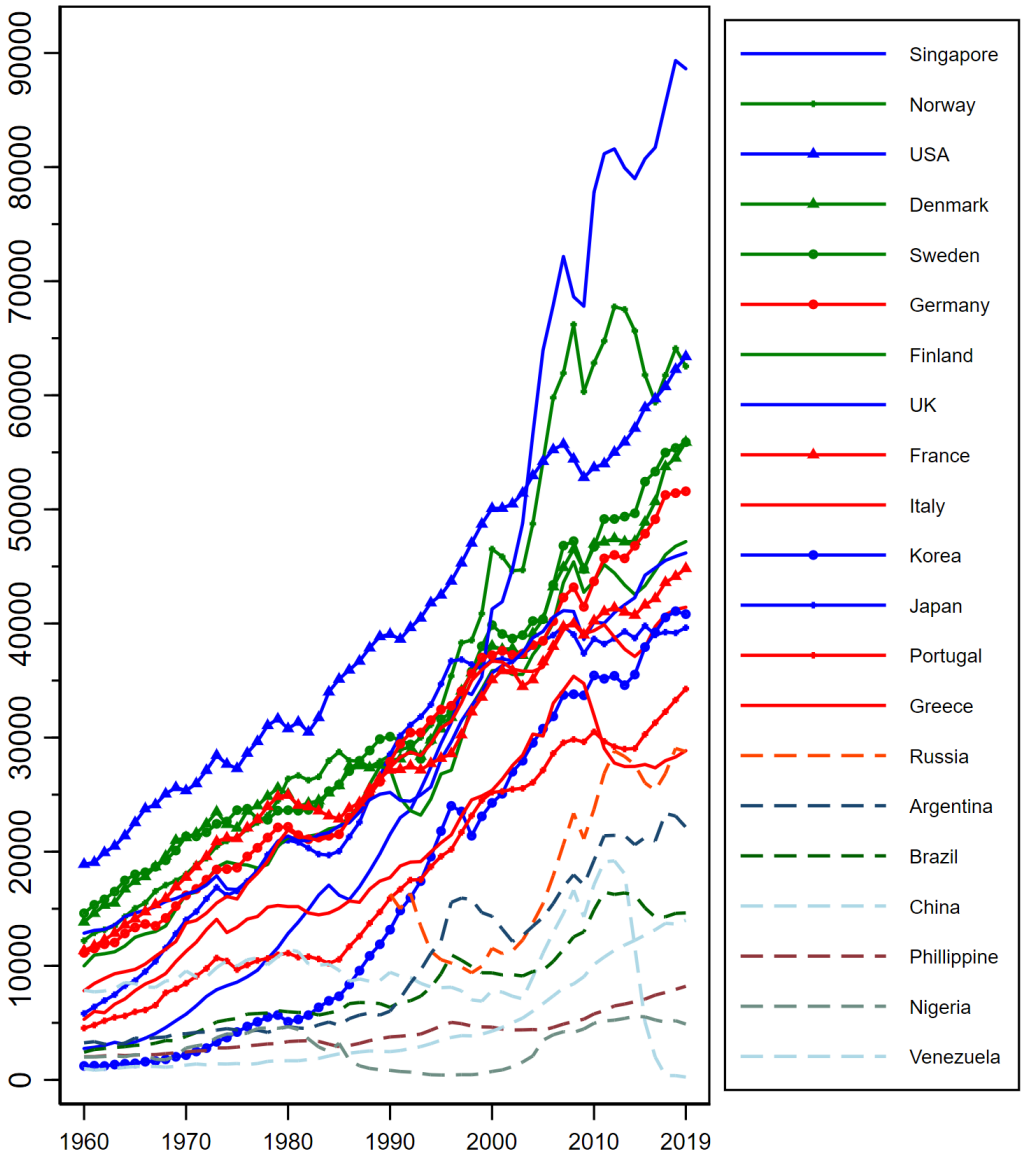
정부의 목표와 수단

정책수단 \ 목표		(A) 형평성과 이동성	(B) 고용	(C) 효율성과 성장				(D) 경기안정
				외부성 / 공공재	비대칭적 정보	불완전 경쟁	혁신 성장	
공적소유	(1.1) 완전한 공적 소유	국유기업, 토지국유		공공재, 인프라		네트워크산업의 국유기업	정부출연 연구소	
	(1.2) 주식시장을 통한 부분적인 공적소유	국부펀드, 공공펀드		은행, 국부펀드				
수량규제	(2.1) 공적 제공	사회서비스, 공공대중교통	사회서비스	교육, 의료, 물산업	사회보험			
	(2.2) 수량 규제	주택존닝	고용규제	안전기준, 환경기준			네가티브규제	
가격규제	(3.1) 가격 직접규제	최저임금		배출요금		네트워크산업 가격규제		기준금리
	(3.2) 가격 간접규제		산업/지역 정책	피구 조세 / 보조금, 죄악세			피구보조금	공개시장정책, 양적완화
거래규제	(4) 거래에 대한 규제	사회보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사회보험, 정보공시	공정거래정책	주식시장 신규상장, 인수합병	
소득개입	(5.1) 조세	누진적 소득세	근로장려세제	피구 조세				거시재정정책
	(5.2) 재정지출	사회보호, 기본소득	실업보험, 단기 공공근로, 고용친화적 혁신정책	피구 보조금				거시재정정책
재산권	(6) 재산권(+시장조성)			법치주의, 특허권, 배출권			특허권	

2. 국제 비교와 장기 시계열 분석을 통해 본 우리나라 재정

- 주요 변수들에 대해서 장기 시계열을 분석
- 복지모형에 대한 Esping-Anderson의 분류법을 활용하여 모형별 성장, 분배, 재정구조의 특징을 식별
- 그래프의 선들은 복지모형을 표식
  - 녹색은 사민주의, 북구모형
  - 붉은색은 주주모형, 영미모형
  - 파란색은 참여자모형, 보수조합주의, 유럽대륙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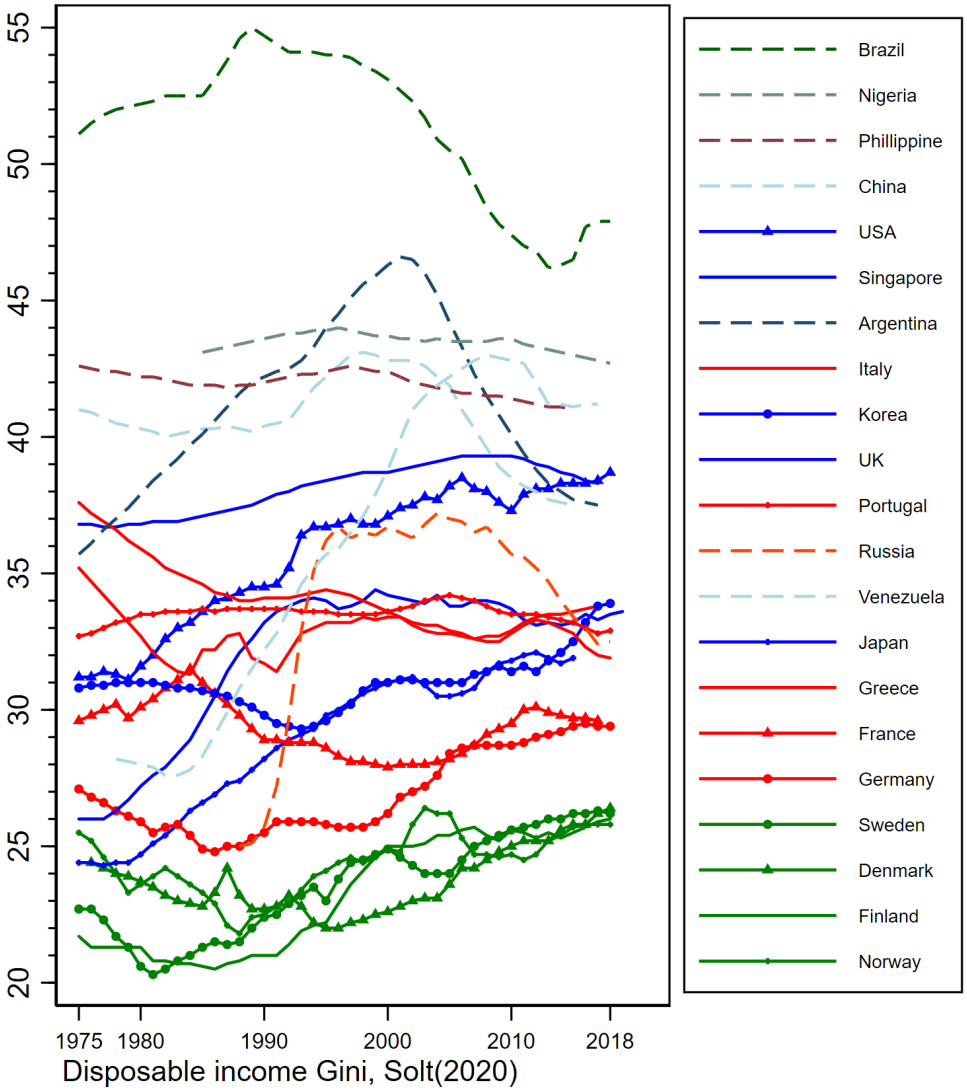
[그림 1] GDP per capita, PPP, PWT, 1960-2019



1인당 GDP 장기 추이에서 관찰되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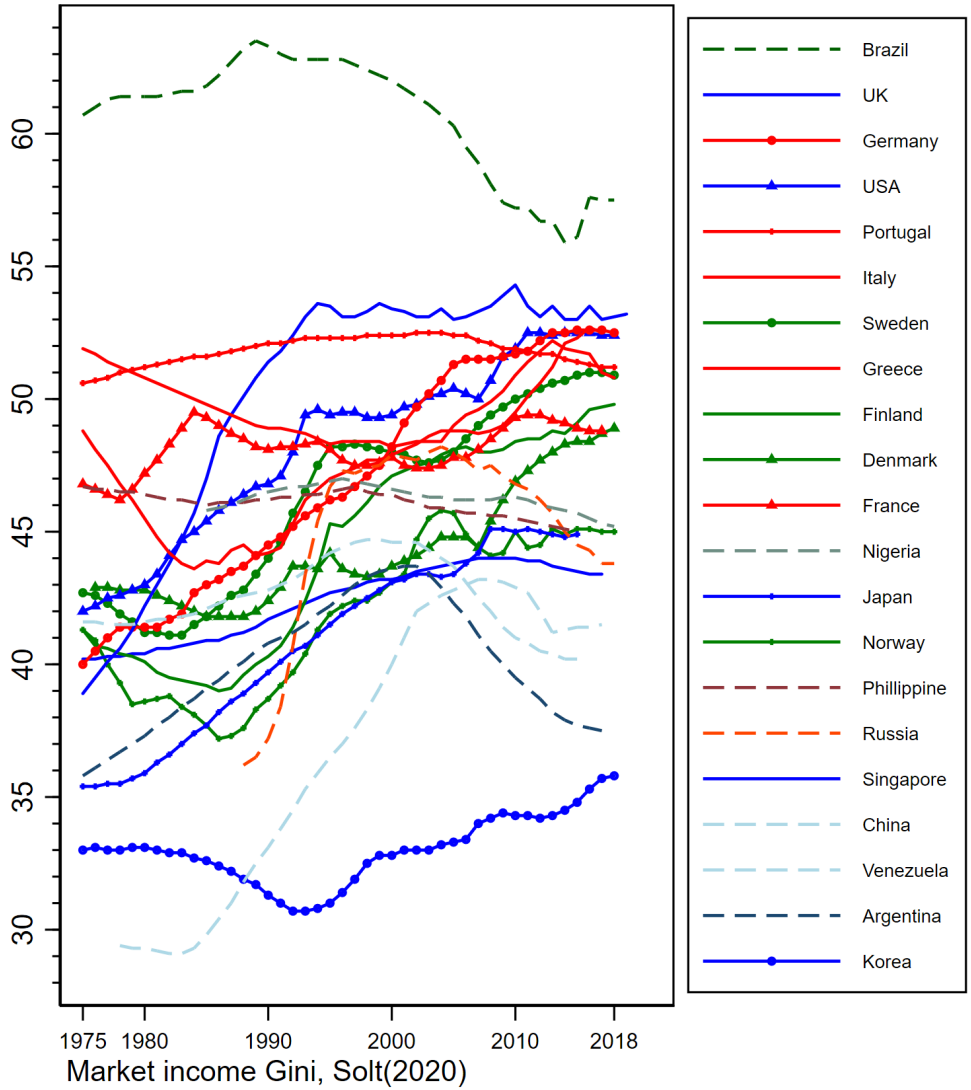
- 실선(점선)은 선진국(개도국) 표시, 선 색상은 복지 모형을 표현
- 특정 복지 모형이 장기적으로 소득에 있어 우위를 보이지 않음
- 한국과 싱가포르는 빠르게 다른 국가들을 추월하고 있음. 다른 국가들을 추월하고 있는 국가들의 특징은 경제위기 자체를 겪지 않는다는 점이 아니라 경제 위기의 깊이가 깊지 않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한다는 점에 있음. 석유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를 겪으면서 1인당 GDP의 순위가 상승.
- 일본은 1985년 이전까지는 빠르게 다른 국가들을 추월, 플라자합의 이후 지난 35여년간 정체를 겪고 있음.
- 선진국(포르투갈과 그리스를 예외로 하고)들은 상대적 고소득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2A] 가처분소득 지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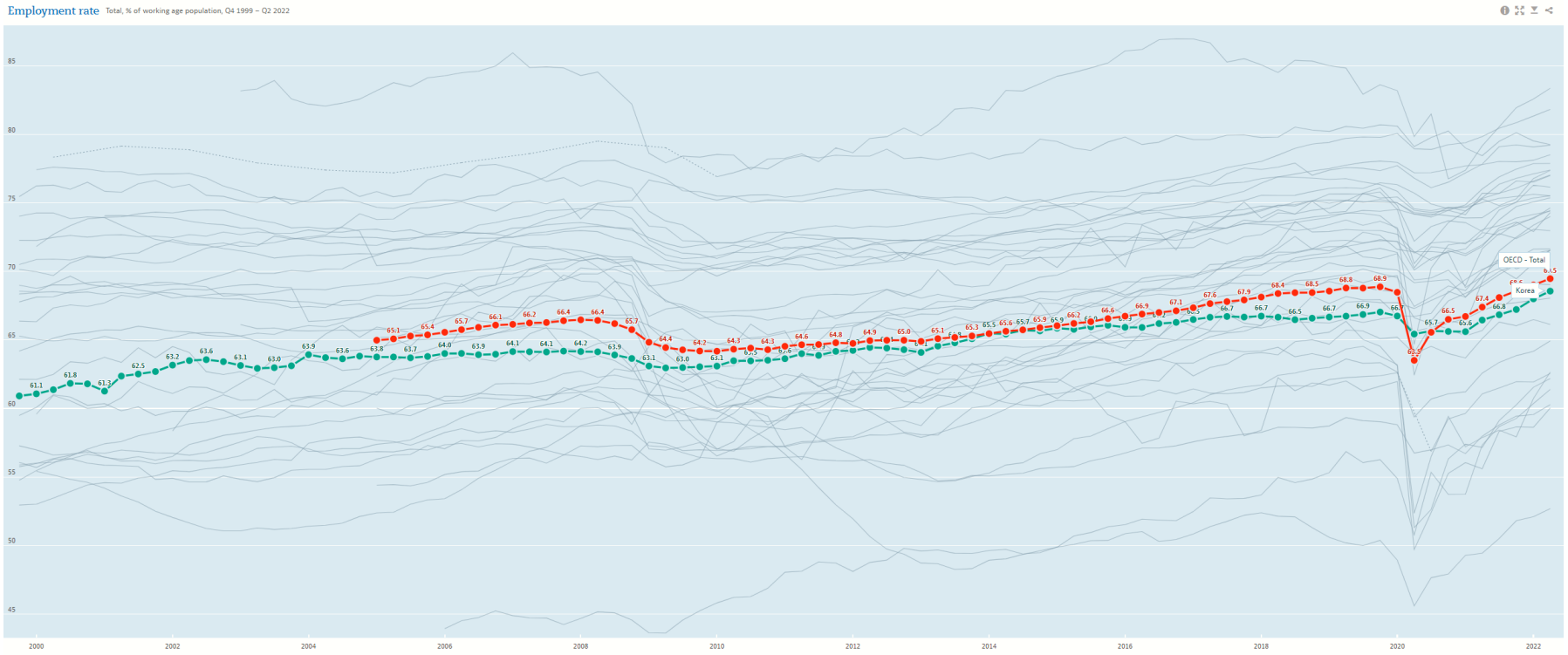
- 국가간, 복지모형간 격차가 매우 크게 관찰됨
- 사민주의모형 국가들과 보수조합주의모형 국가들에서 가처분소득 지니가 낮음이 관찰됨. 이들 복지 국가에서 소득재분배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
- Countries with 주주중심모형 국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불평등도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2B] 시장소득 지니



- 복지모형 간 시장소득 지니값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음
- 1980년대 이후 시장소득 지니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숙련편향기술발전과 국제화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
- 사민주의모형과 보수조합주의모형 국가들에서 강한 소득재분배 정책에 의해 시장소득지니 0.5에서 가처분소득지니를 0.25, 0.35로 낮춤.

[그림 3] 고용율, 15-64 인구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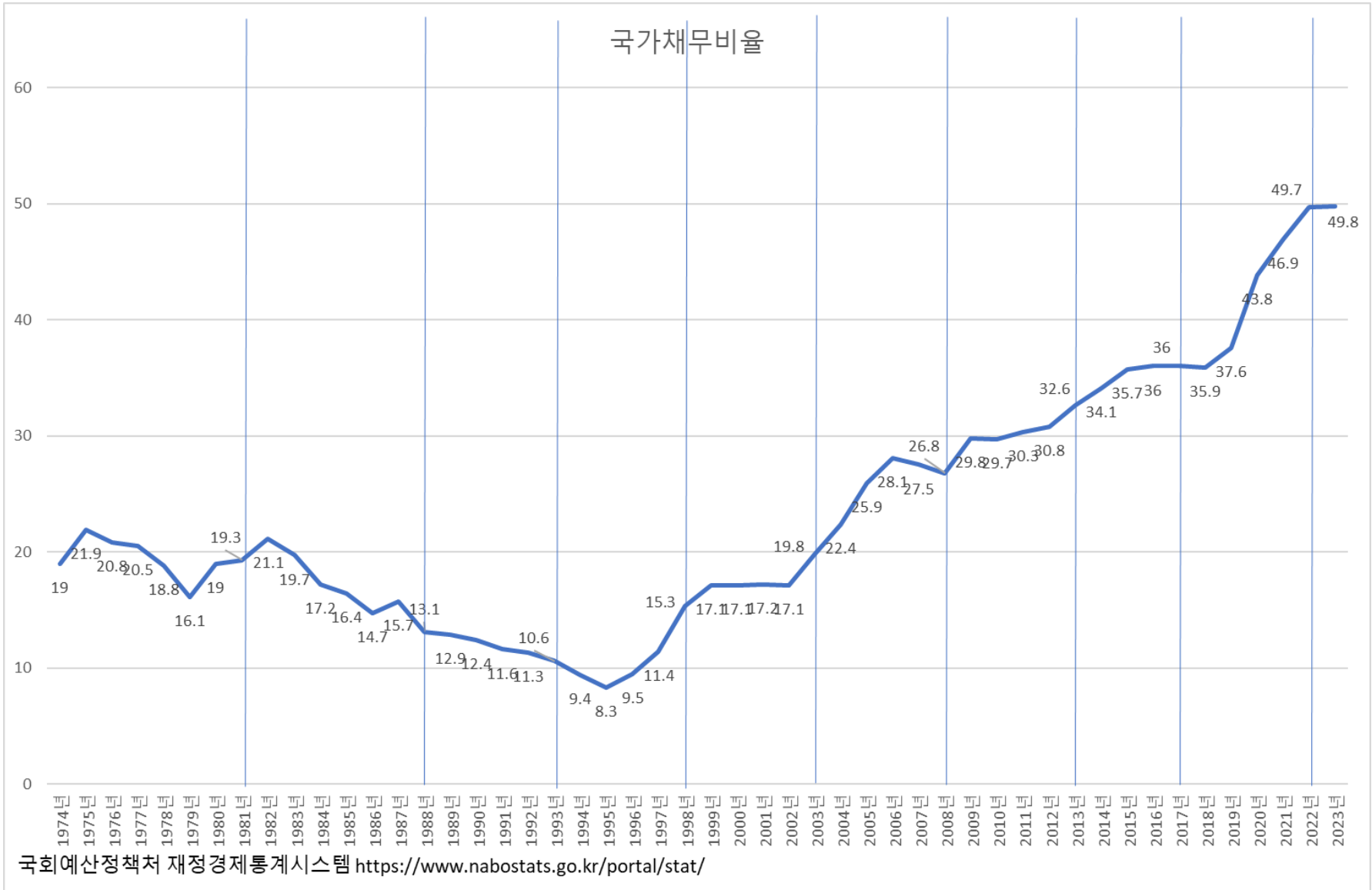


- 출처 OECD Data

고용율 장기 추이에서 관찰되는 특징

- 한국의 고용율은 2000년 61% 에서 2022년 68.6%로 지난 20여년간 7%p 정도 개선
- OECD 평균과의 격차는 2010-2015년 사이 축소되다가 이후 다시 확대되다 코로나 이후 감소했으나 이후에도 격차는 유지됨.
-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노르웨이, 독일, 호주, 스웨덴,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 높고,
- 튀르키에, 이태리, 그리스, 멕시코,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등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서비스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높은 고용률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4] 국가채무, 한국 1974-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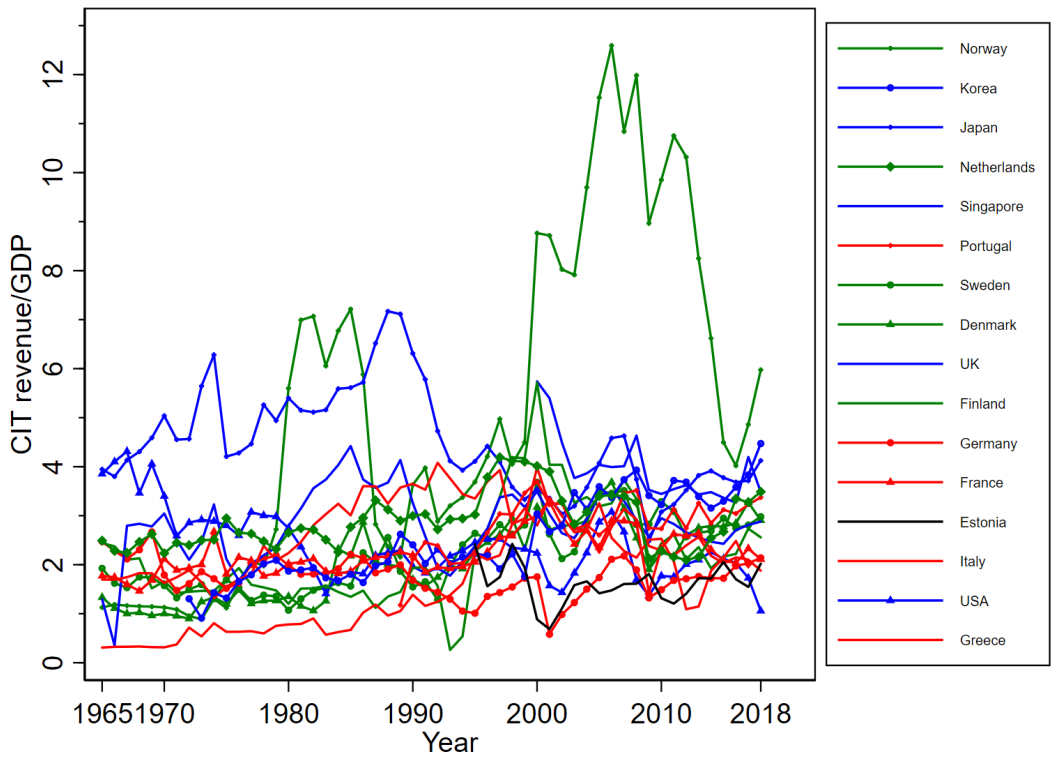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https://www.nabostats.go.kr/portal/stat/

국가채무 장기 추이에서 관찰되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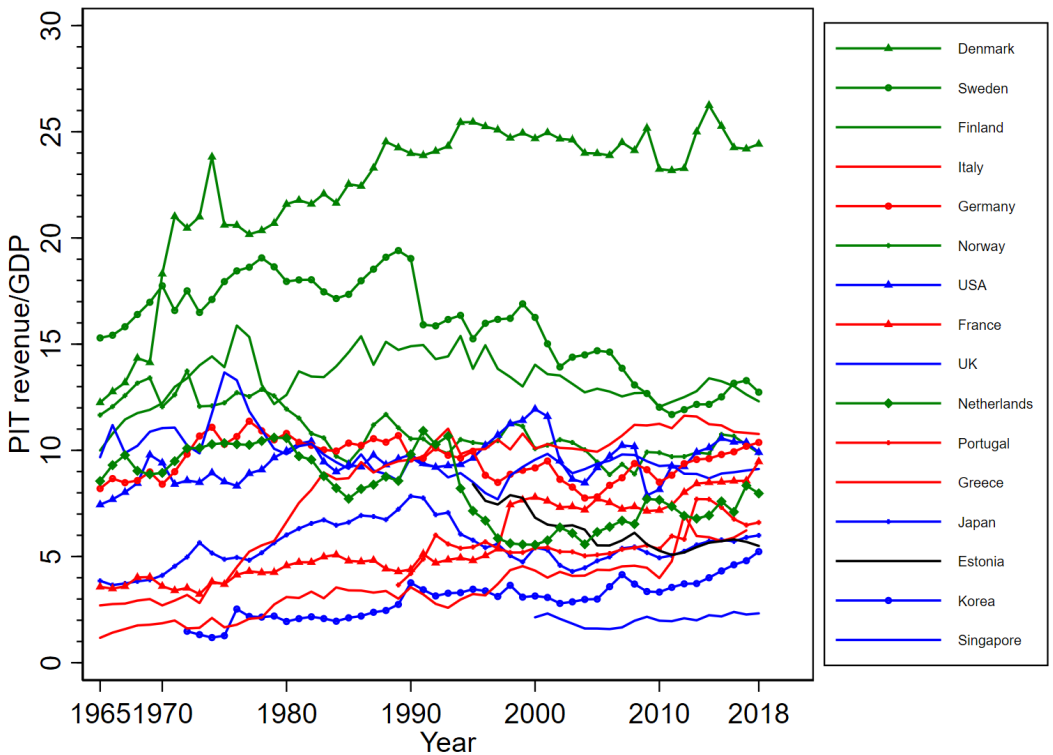
- 1974-1993년 하락 추세
- 1993-1998년 (김영삼 정부) 후반에 빠르게 증가
- 1998-2008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1.5%p 증가 (연평균 증가율 1.15%p). 외환위기, 공사채의 국채전환
- 2008-2017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9.2%p 증가 (연평균 증가율 1.02%p). 글로벌 금융위기
- 2017-2022년 (문재인 정부) 13.7%p (연평균 증가 2.74%p). 코로나.
- 2022- (윤석열 정부) 국가재정운영 계획에 2026년까지 2.5%p 증가 (연평균 증가율 0.63%p) 제시.

[그림 5A] 법인세수,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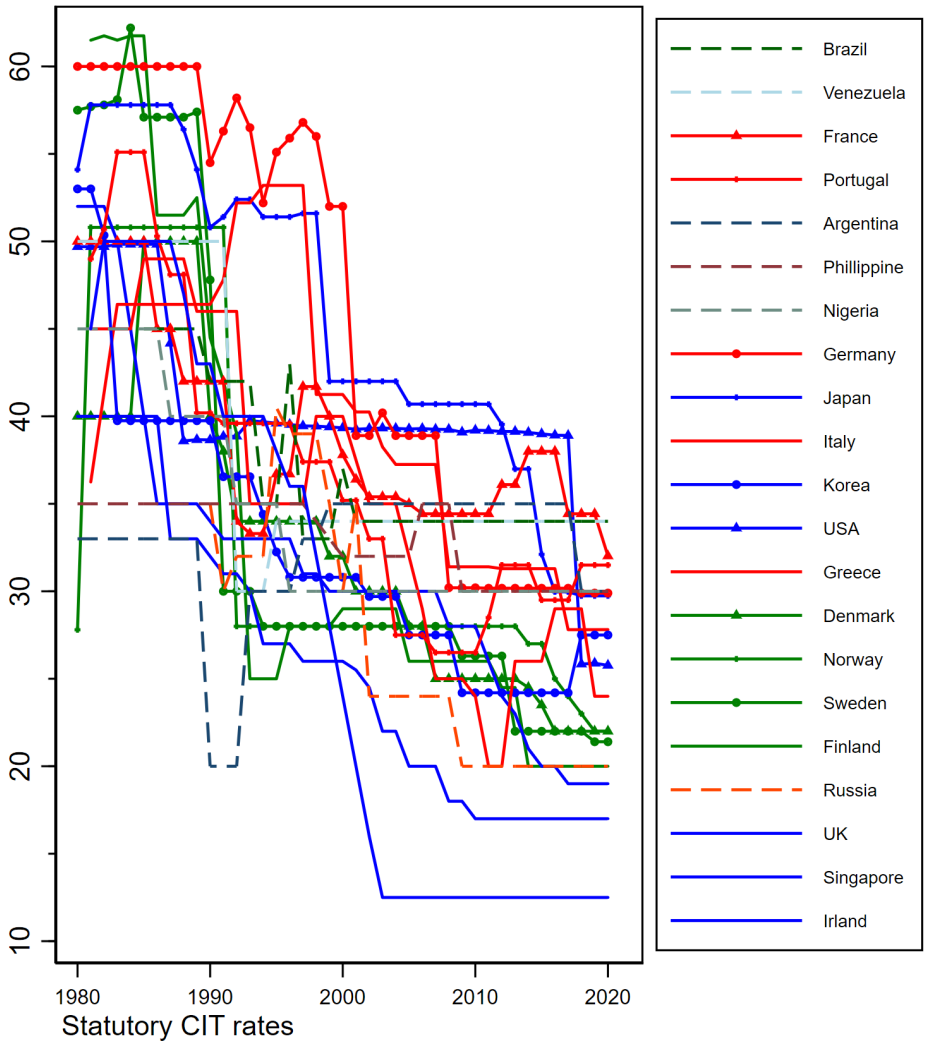
- 법인세수는 개인소득세수보다 작은 경향. 복지모형별로 법인세수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국가 간 법인세수 차이는 개인소득세수의 차이보다 작음. 한국의 법인세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
- 미국의 법인세수는 대폭적 세율인하, 즉시상각 도입, 최저한세 폐지 등이 이루어진 2018년 큰 폭으로 하락.

[그림 5B] 개인소득세수,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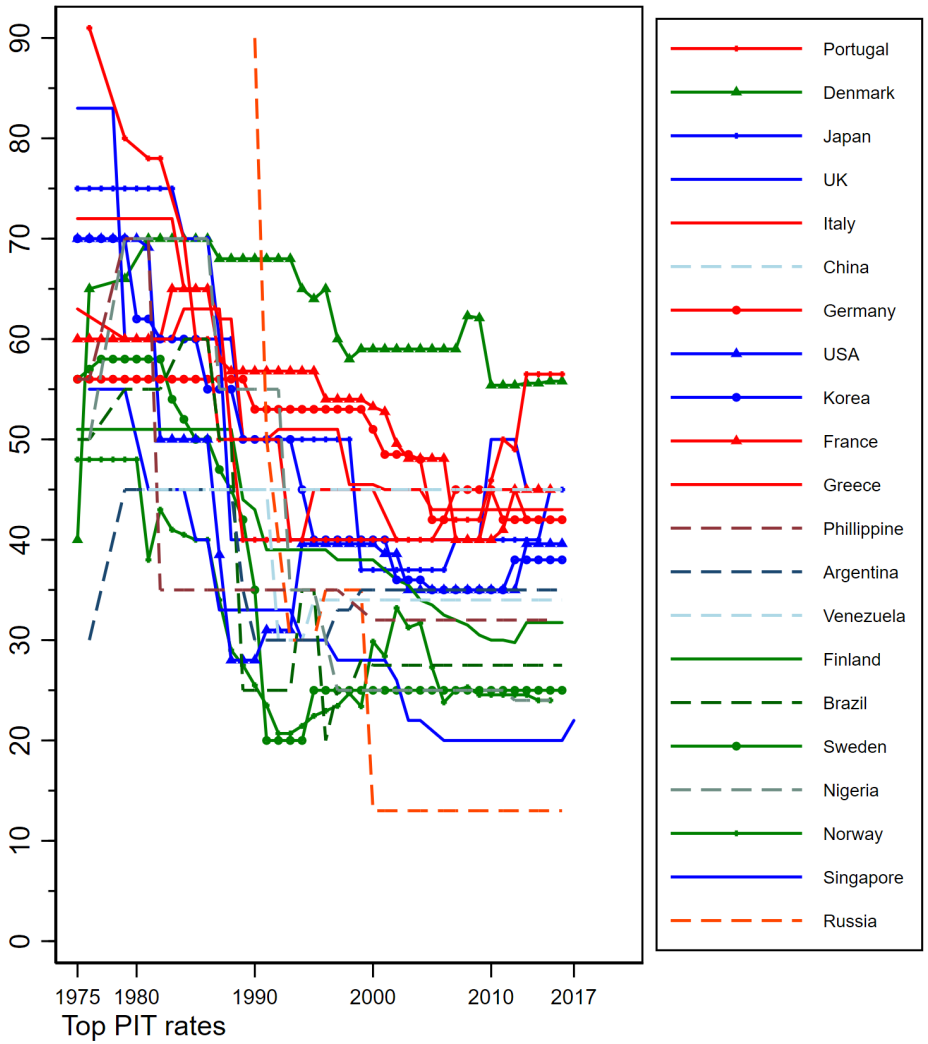
- 개인소득세수는 국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국가내의 시기 간 차이가 크지 않음
- 한국의 개인소득세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5% 정도로 여전히 OECD 국가들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북구모형국가들에서 개인소득세는 높은 경향이 있음(단, 네덜란드는 예외).
- 그림 5A와 5B는 복지 재원이 법인소득세보다는 개인소득세로 조달되고 있음을 시사.

[그림 5C] 법정 법인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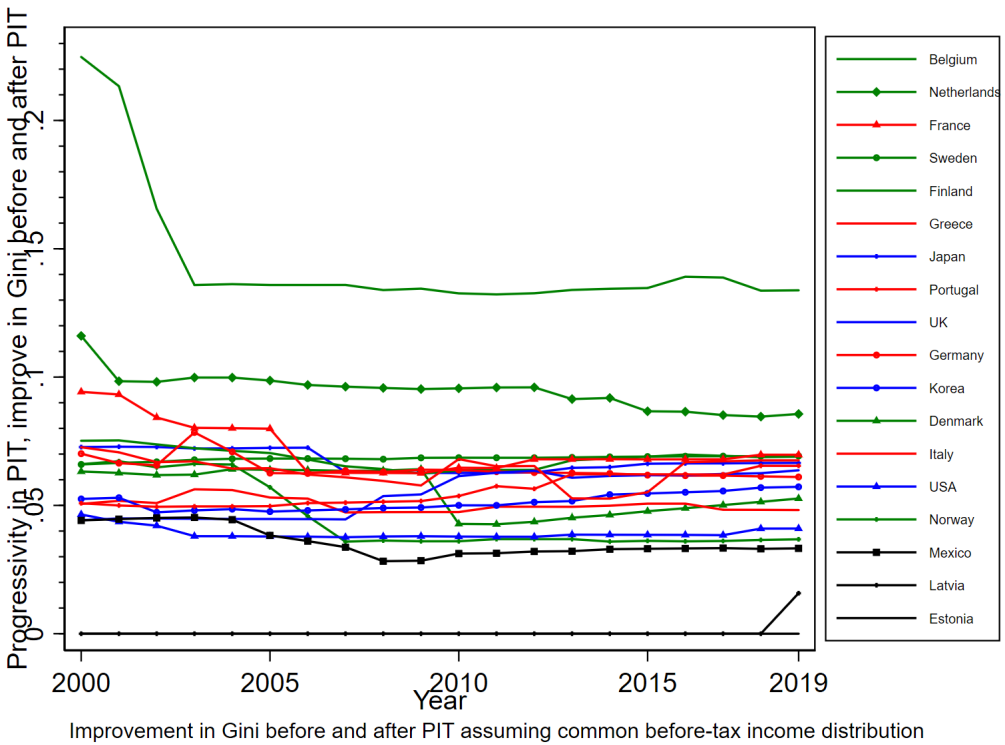
- 강한 인하 추세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관찰
- 고세율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법인세율은 1980년대초 57-63% (핀란드, 독일, 일본, 스웨덴 등)에서 2010년대후반, 30-34% (프랑스, 포르투갈, 독일, 일본)로 대폭 인하
- 저세율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법인세율은 1980년대 35% 수준에서 2010년대 후반 20% 이하로 낮아짐.
-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2018년 25%로 인상하면서 평균보다 높은 수준
- 소규모 개방경제의 법인세율이 낮은 경향이 관찰

[그림 5D] 법정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 강한 인하 추세가 1980년대에 관찰. 미국의 TRA1986.
- 고세율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개인소득세율은 1980년대초까지 70%를 상회 (포루투갈, 영국, 일본, 미국, 덴마크 등)에서 2010년대후반, 45-55% (포르투갈, 덴마크, 일본, 영국 등)로 대폭 낮아짐.
-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평균 정도의 수준을 보임
- 국가별 특성이 반영되어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국가와 낮은 세율을 유지하는 국가들이 병존. 북구모형 국가들의 세율이 높기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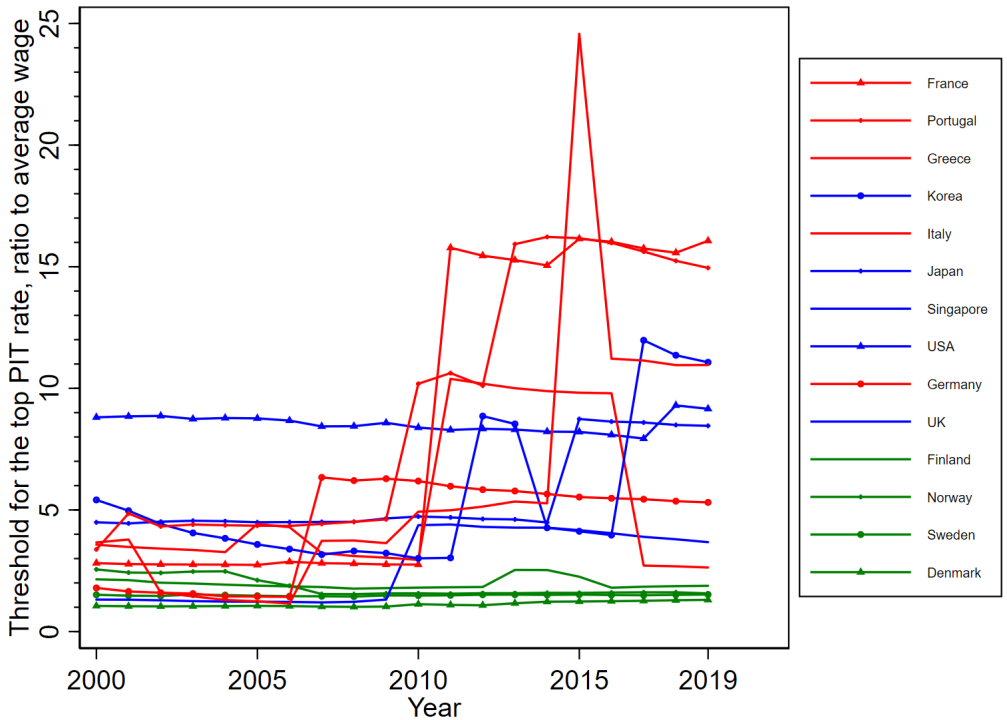
[그림 6A] 개인소득세 누진도, 세전 지니와 세후 지니 격차



Improvement in Gini before and after PIT assuming common before-tax income distrib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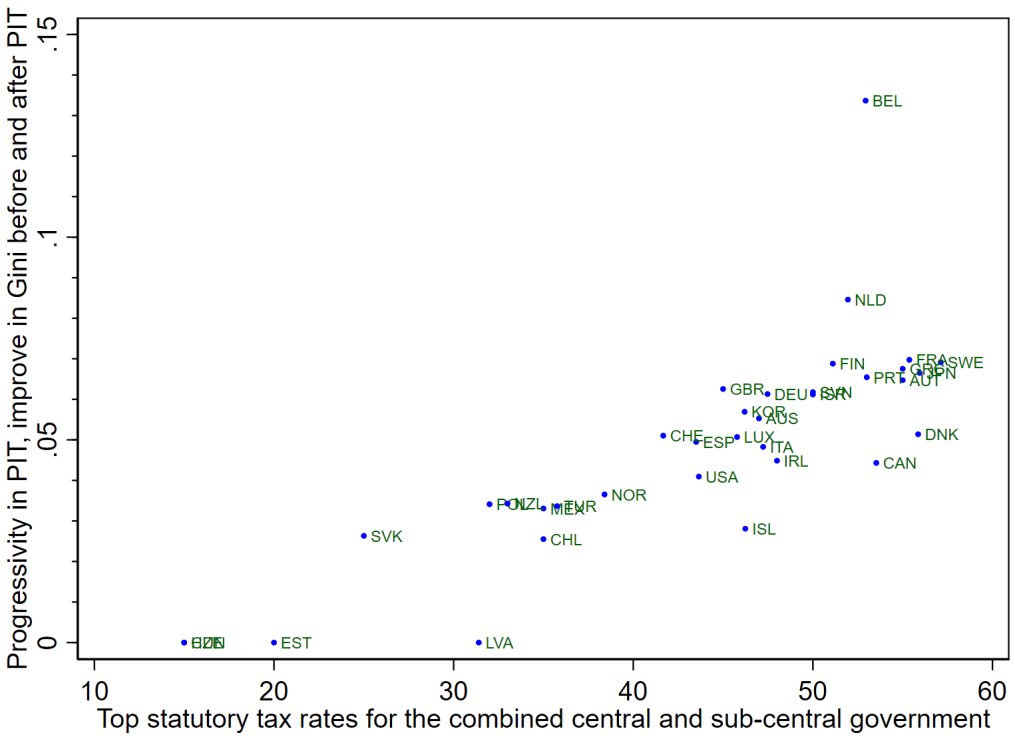
- 벨기에의 누진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네덜란드가 높음.
- 평률세를 도입한 Latvia, Estonia, Czech, Hungary은 가장 낮은 누진성을 보임.

[그림 6B]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적용소득, 평균임금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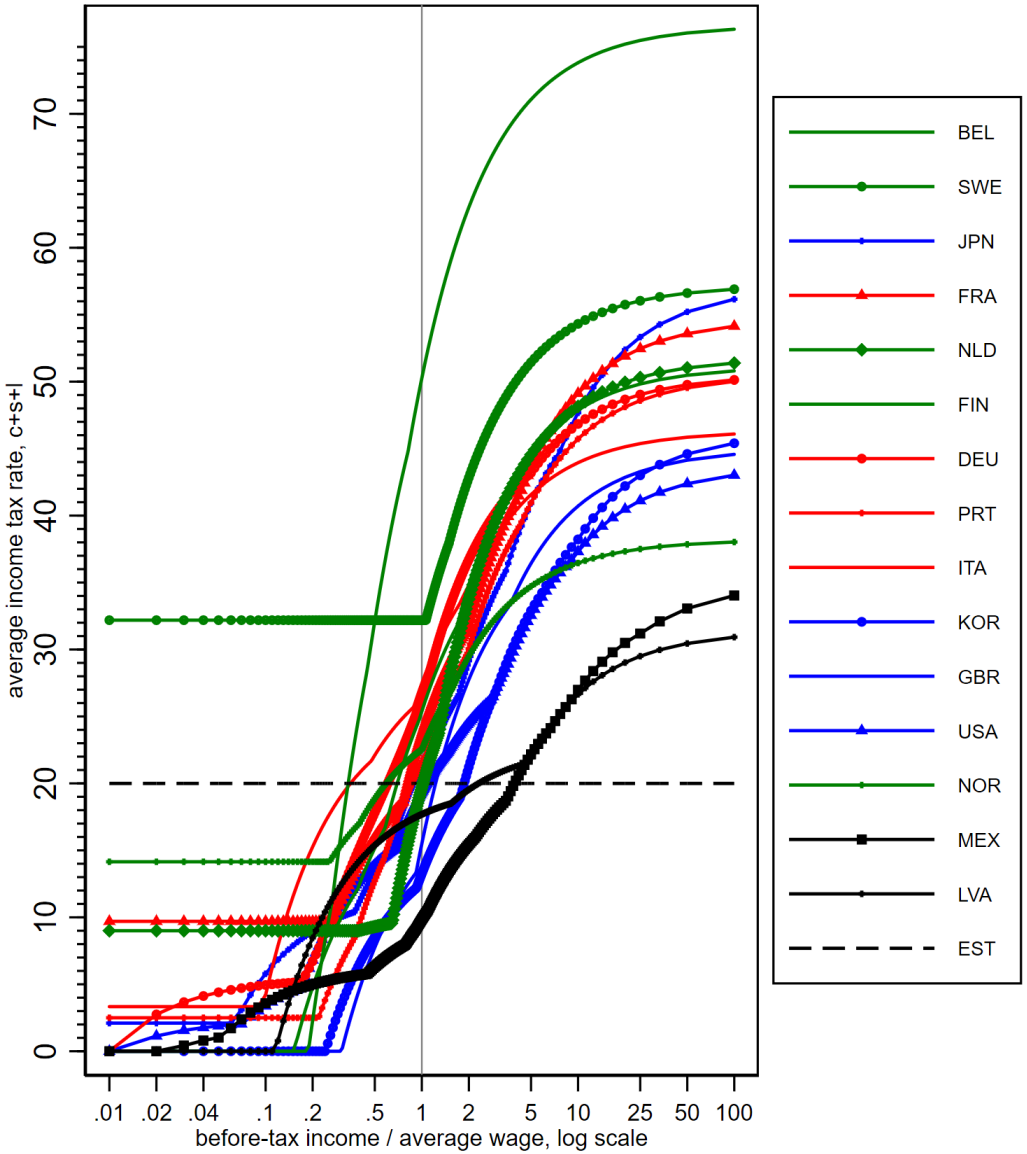
- 사민주의모형 국가들의 경우 평균소득의 1-2배 수준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최고세율이 이미 적용.
- 프랑스, 포르투갈, 그리스, 한국, 이태리, 미국, 일본 등에서 8-18배 수준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최고세율이 적용.

[그림 6C]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누진도,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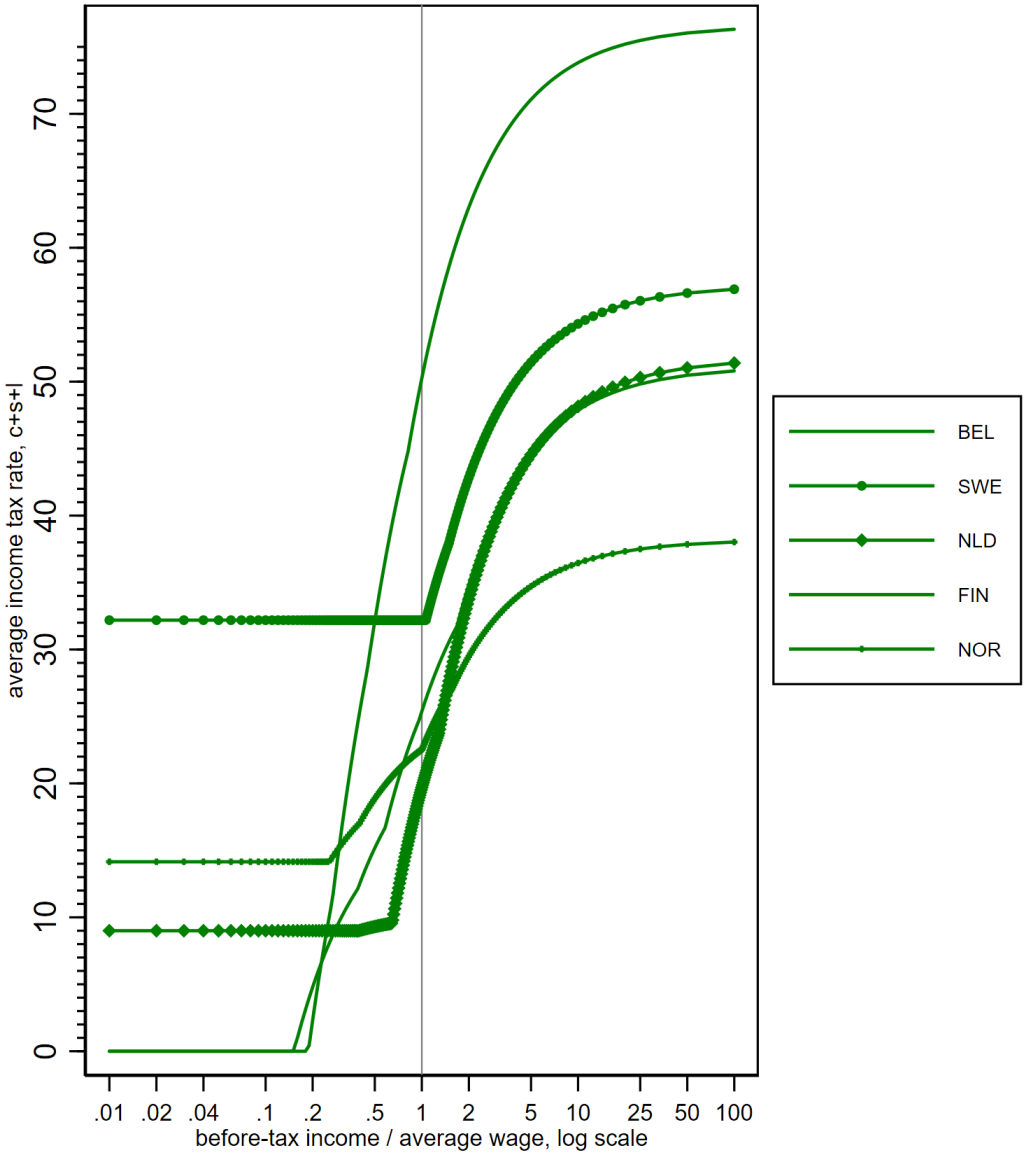
- 누진성은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높은 경향
- 벨기에는 가장 높은 누진성을 가지고 있지만, 최고세율이 가장 높지는 않음.
- 평률세를 도입한 국가들에서 누진성은 가장 낮으며, 최고세율은 이 두변수간의 관계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높음.

[그림 7A] 과표에 따른 평균세율의 구조,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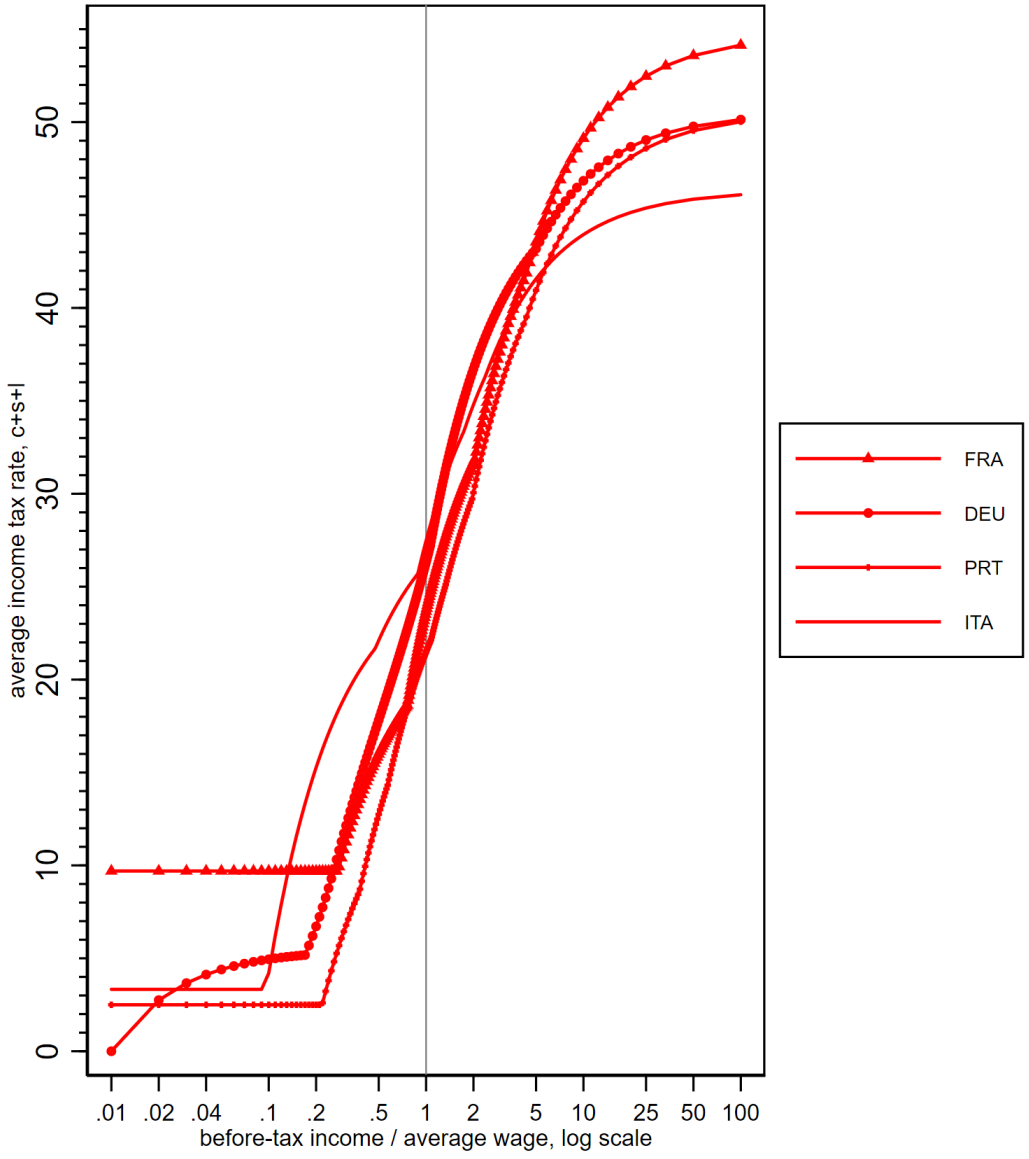
- 누진성은 사민주의모형 ¿ 참여자모형 ¿ 주주중심모형.
- 주주중심모형에서의 예외는 일본이고, 사민주의모형에서의 예외는 노르웨이임.
- 고소득에 대응하는 평균세율뿐 아니라 저소득에 대응하는 평균세율에 있어서 국가별 차이가 매우 큼. 평균임금의 2-3배 수준에 대응하는 평균세율은 북구모형 국가에서 가장 높음.

[그림 7B] ..., 사민주의모형 국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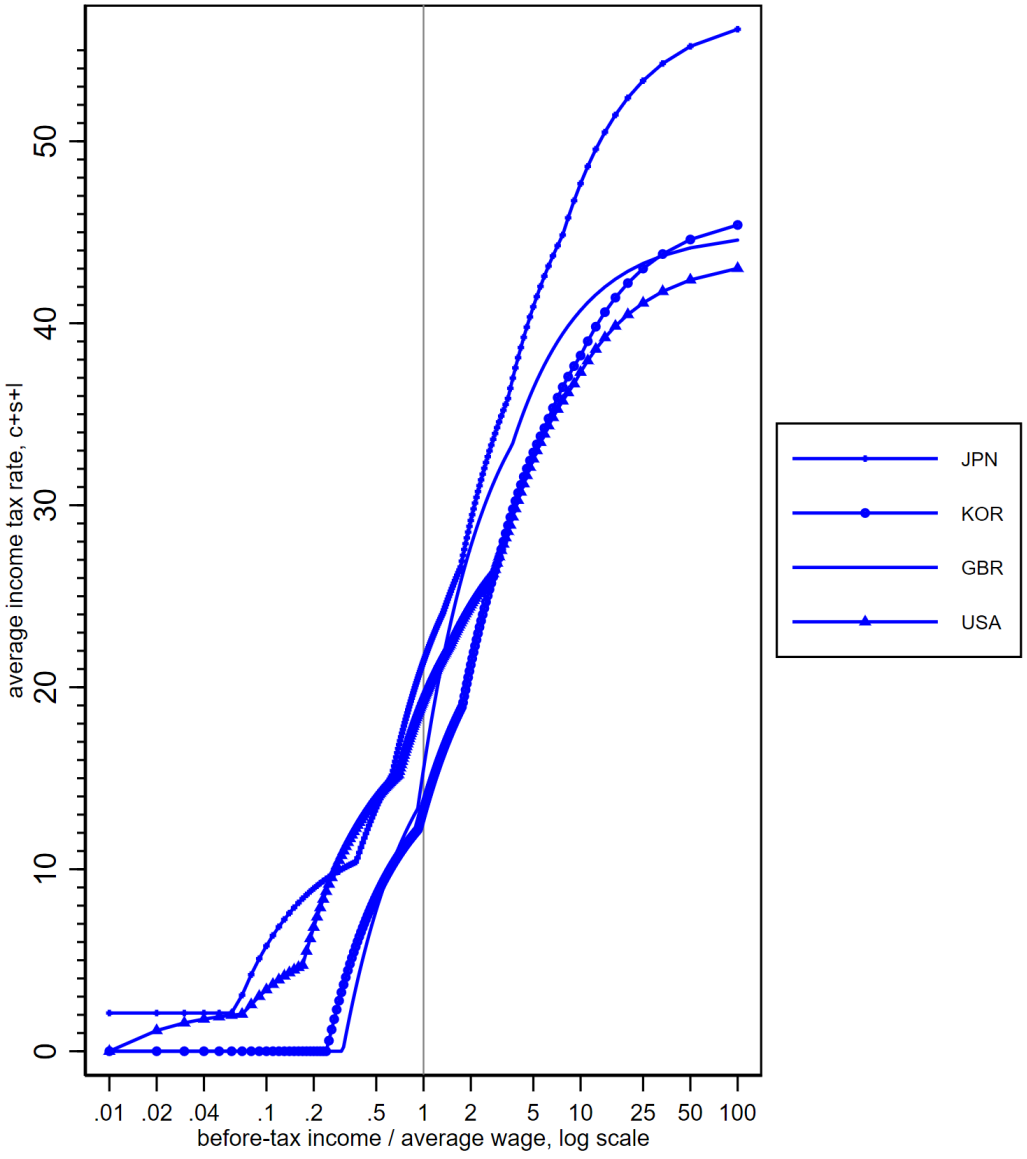
- 사민주의모형 국가들이 가장 강한 누진성과 높은 최고세율을 가지고 있음.
- 노르웨이는 사민주의 국가들주에서 가장 낮은 최고세율과 약한 누진성을 가지고 있음.

[그림 7C] ..., 보수조합주의 국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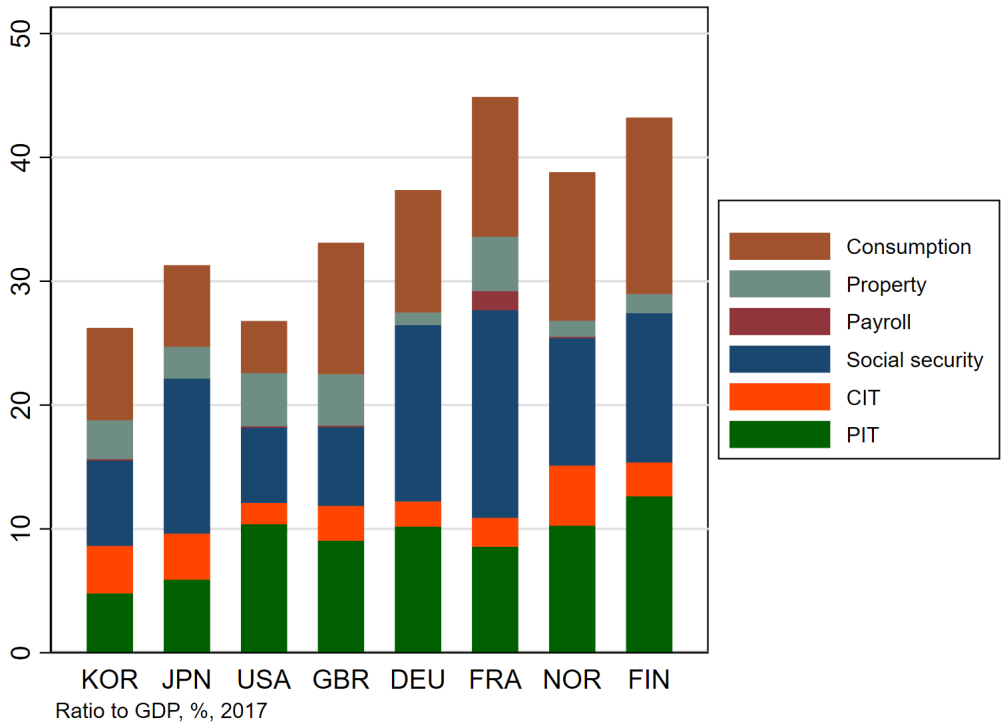
- 참여자모형 국가들은 중간에 위치
- 프랑스가 참여자모형 국가들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세율과 강한 누진성을 가지고 있음.

[그림 7D] ..., 주주중심모형 국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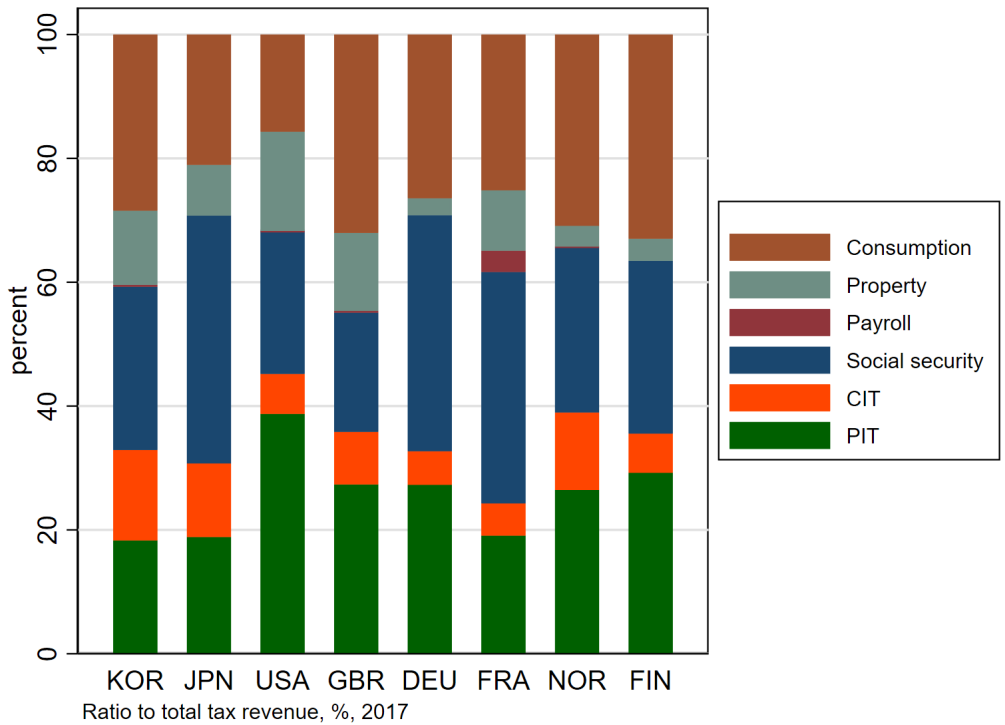
- 주주중심모형 국가들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약한 누진성과 낮은 최고세율을 가지고 있음.
- 미국이 가장 약한 누진성과 낮은 최고세율을 지니고 있음.

[그림 8A] 정부수입의 구조, 2017,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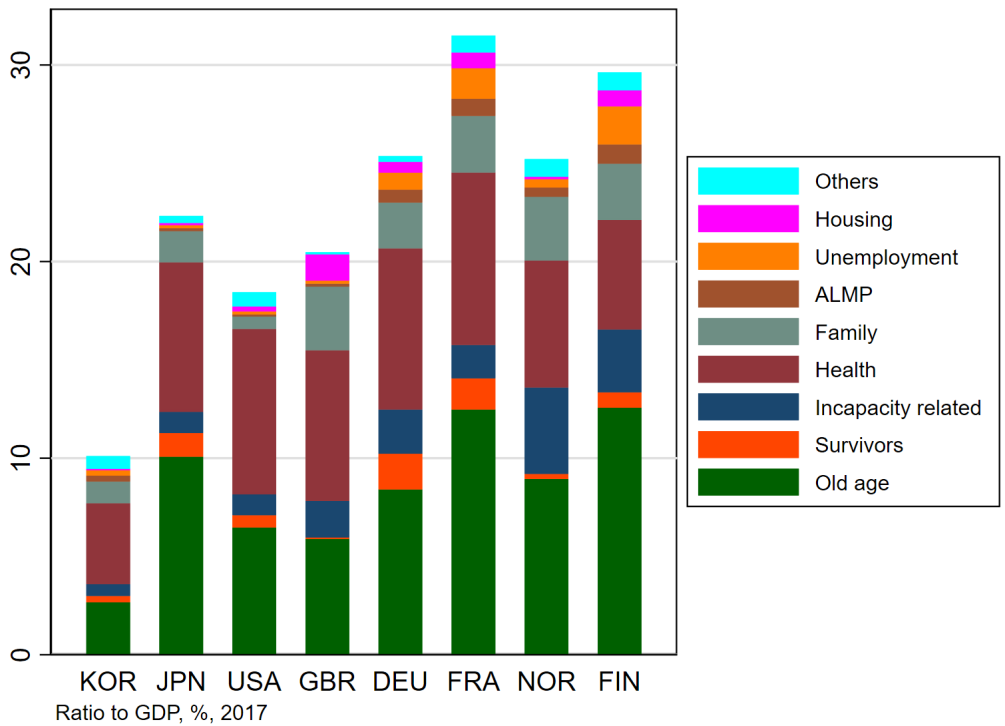
- 사민주의모형 국가들과 보수조합주의모형 국가들의 국민부담률은 35 45% 정도로 매우 높음.
- 주주중심모형 국가들의 국민부담률은 26 33%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8B] 정부수입의 구조, 2017, 정부총수입 대비 %



- 주주중심모형 국가들은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참여자모형 국가들은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 수입의 비중이 높음. 이는 높은 공공부조, 사회보험 지출 비중과 연계.
- 사민주의모형 국가들은 개인소득, 사회보장세에 덧붙여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높음. 이는 높은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지출 비중과 연결.

[그림 9] 사회복지지출의 구조, 2017, GDP 대비 %



- 주주중심모형 국가들이 낮은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보이고 있음. 단, 미국은 잘못 디자인된 의료보험 제도로 인해 매우 높은 의료비지출 수준을 보임. 일본은 다른 주주중심모형 국가보다 높은 복지지출을 보이고 있음. 영국은 유럽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 가족, 주택 쪽 지원이 큼.
- 참여자모형 국가들은 높은 사회보험 지출을 보이고 있음.
- 사민주의모형 국가들은 사회보험에 덧붙여 가족,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주거 지출이 높음.

3.1 성장 회귀식 설정

- Growth Regressions

$$gr(GDPpc)_{i,t} = \gamma_0 + \gamma_1 CIT_{i,\bar{t}_i} + \gamma_2 PIT_{i,\bar{t}_i} + \gamma_4 Prog_{i,\bar{t}_i} + \gamma_5 ln(GDPpc_{i,t_0}) + \gamma_6 gr(Pop)_{i,t} + \gamma_7 Open_{i,\bar{t}_i} + \epsilon_{it}$$

$$gr(GDPpc)_{i,t} = \gamma_0 + \gamma_3 (CIT_{i,\bar{t}_i} - PIT_{i,\bar{t}_i}) + \gamma_4 Prog_{i,\bar{t}_i} + \gamma_5 ln(GDPpc_{i,t_0}) + \gamma_6 gr(Pop)_{i,t} + \gamma_7 Open_{i,\bar{t}_i} + \epsilon_{it}$$

- 종속변수는 PWT의 1인당 GDP 연간 성장률
- 주요 독립변수: CIT, PIT, PIT 누진도
- 통제변수: 초기 1인당 GDP, 인구증가율, 개방도
- 1980-2019년 사이 5년 단위로 8개 기간을 설정하고, 기간내 성장률을 사용.
- 인구증가율과 초기 1인당 GDP를 제외한 다른 독립변수는 초기 2년간의 값의 평균치를 사용.

3.1 소득분배 회귀식 설정

- Income inequality regressions

$$Gini_{i,\bar{t}} = \beta_0 + \beta_1 CIT_{i,\bar{t}_i} + \beta_2 PIT_{i,\bar{t}_i} + \beta_3 Prog_{i,\bar{t}_i} + \beta_4 Open_{i,\bar{t}_i} + \beta_5 SOCX_{i,\bar{t}_i} + \epsilon_{it}$$

  - 종속변수: 시장소득 지니, 가처분소득 지니 Solt(2020)
  - 주요 독립변수: CIT, PIT, PIT 누진도
  - 통제변수: 사회복지 지출, 개방도
  - 5년단위 기간으로 8개 기간
  - 초기 2년간의 평균치를 사용

3.2 문헌

- 조세구조와 경제성장
  - Lee and Gordon (2005)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성장이 빠른 것을 관찰.
  - Arnold et. al (2011) 서베이 논문.
- 조세구조와 소득분배
  - 소득분배에 영향을 주는 요인
    - tax structure: Lee (2020)
    - unionisation (+): Gustafsson and Johansson (1999); Card, Limieux, and Riddell (2003)
    - population structure
    - agriculture (−):
    - openness (+): Alderson and Nielsen (2002), Jeon and Lee (2020)
    - mobility (+): Jeon and Lee (2020)
    - education (+): Barro (2000)
    - social expenditure (+): Jeon and Lee (2020)
- 조세 경쟁
  - Lee (2020): 법인세는 국제 조세경쟁을 개인소득세는 복지와 같은 국가별 특징을 보다 반영

3.3 누진도 변수 산정방식

- '법정' 누진도 지수
  1. 실제 소득분포를 이용하는 것 대신에 모든 국가 모든 년도에 대해서 동일한 가상의 세전소득 분포 를 가정.
     - 실제 소득분포는 이미 누진도가 가지는 개인의 직장선택, 투자선택, 세금신고선택 등에 대한 영향을 포함.
     - 세전소득이 0.75*(평균임금)을 평균으로 그리고 0.90*(평균임금)을 표준편차로 갖는 로그정규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
     - 세전소득 지니는 모든 국가, 모든 년도에 동일.
  2. 납세액을 각 국가의 각 년도의 공제, 세액공제, 세율구조, 그리고 세액공제을 반영하여서 계. 납부액을 이용해서 세후소득과 평균세율을 계산 (see ▸ 그림 7A).
  3.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을 이용해서, 세전소득지니와 세후소득지니를 산정하고, 우리의 '법정' 누진도는 세전소득지니 - 세후소득지니로 산정. (see ▸ 그림 6A)

3.4 데이터 출처

- 데이터 출처
  - 법인세율, 개인소득세율 from OECD Tax Database; 세수 from OECD Revenue Statistics
  - Real GDP per capita based on PPP from PWT10.0
  - 지니계수 from Solt (2020)
  - 제도지수 from World Bank -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2021
  - 다른 통제변수들 from WDI (World Development Indicator)

[표 2-1] 성장회귀 분석 결과, All countries

VARIABLES	(1) 80-19 OLS	(2) 80-19 IV	(3) 80-19 FE	(4) 80-19 FE+IV	(5) 80-00 IV	(6) 80-00 FE+IV
CIT_Rt_i	-0.035+	-0.046*	-0.157**	-0.245**	-0.048+	-0.271**
	(0.018)	(0.020)	(0.045)	(0.055)	(0.029)	(0.040)
lnGDP_pc_0	-1.442**	-1.440**	-5.389**	-6.461**	-1.000*	-7.108**
	(0.178)	(0.177)	(1.001)	(0.990)	(0.390)	(0.754)
POP_Gr_t	-1.149**	-1.131**	-1.768**	-1.674**	-1.513**	-1.709**
	(0.172)	(0.171)	(0.197)	(0.200)	(0.339)	(0.177)
OPEN_G_i	0.014**	0.013**	0.035**	0.032**	0.018**	0.031+
	(0.003)	(0.003)	(0.013)	(0.011)	(0.004)	(0.017)
Observations	528	528	528	528	237	237
R-squared	0.164	0.163	0.247	0.329	0.193	0.618
F for weak id		676.1		406.9	298.3	125.9

$**$ $p < 0.01$, $*$ $p < 0.05$, $+$ $p < 0.1$
Country-cluster-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Constant is included, not reported.
In (2) and (4), instrumented is CIT_Rt_i.

[표 2-2] 성장회귀 분석 결과, OECD vs. non-OECD

	(1) OECD 80-00	(2) OECD 00-19	(3) OECD 00-19 w/o Flat	(4) non-OECD 80-00	(5) non-OECD 00-19	(6) non-OECD 00-19 w/o OPEC
	IV	IV	IV	IV	IV	IV
VARIABLES						
CIT_Rt_i	-0.073**	-0.069**	-0.079**	-0.071	0.144**	0.024
	(0.028)	(0.026)	(0.030)	(0.051)	(0.056)	(0.038)
lnGDP_pc_0	-1.108	-1.991**	-1.607**	-2.302**	-2.388*	-2.348**
	(1.001)	(0.496)	(0.454)	(0.473)	(1.012)	(0.280)
POP_Gr_t	-0.125	-0.163	-0.023	-1.329**	-0.811**	-1.261**
	(0.563)	(0.229)	(0.276)	(0.461)	(0.304)	(0.233)
OPEN_G_i	0.015+	0.012**	0.011**	0.029**	0.018**	0.015**
	(0.008)	(0.003)	(0.003)	(0.005)	(0.006)	(0.004)
Observations	112	140	124	125	151	136
R-squared	0.067	0.390	0.284	0.265	0.132	0.216
F for weak id	168.2	256.1	254.7	275.3	174.8	102.7

$**$ $p < 0.01$, $*$ $p < 0.05$, $+$ $p < 0.1$

Country-cluster-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Constant is included, not reported.

In (1) through (6), CIT_Rt_i is instrumented.

3.5 성장회귀 분석 결과

- Lee and Gordon (2005)에 보고된 결과와 같이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된 전체 표본에 대해서 법인세율과 경제성장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 음의 상관관계는 최소자승법뿐 아니라 고정효과 추정에서도 관찰됨.
- OECD, non-OECD 표본으로 나누어 추정한 결과, 법인세와 경제성장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OECD 표본에서만 관찰됨.
  - 낮은 법인세율의 성장촉진 효과가 기업가활동과 연계된 제도와 기업환경 하에서만 발현된다고 하면, 제도 및 기업환경이 열악한 개도국 표본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음을 설명할 수 있음.
  - 개도국, 후반기에 있어서는 예측과 반대인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
- 조건부 수렴현상과 개방과 경제성장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됨.

[표 2-3] 경제성장 회귀분, 누진도 포함, OECD, 2000-19

VARIABLES	(1) OLS	(2) IV	(3) IV	(4) FE	(5) FE+IV	(6) FE+IV
CIT_Rt_i	-0.061*	-0.071+	-0.055	-0.098+	-0.196*	-0.181**
	(0.029)	(0.038)	(0.034)	(0.056)	(0.078)	(0.067)
PIT_Rt_i	0.032	0.061	0.033	0.008	0.019	-0.004
	(0.024)	(0.040)	(0.023)	(0.046)	(0.063)	(0.050)
PIT_Prog_i	-0.130+	-0.133	-0.137+	0.082	0.287	0.166
	(0.074)	(0.109)	(0.077)	(0.150)	(0.298)	(0.168)
lnGDP_pc_0	-2.063**	-2.365**	-2.079**	-6.589**	-7.376**	-7.523**
	(0.463)	(0.489)	(0.440)	(0.818)	(0.918)	(0.912)
POP_Gr_t	-0.207	-0.225	-0.209	-0.069	0.134	0.060
	(0.241)	(0.252)	(0.233)	(0.829)	(0.854)	(0.848)
OPEN_G_i	0.014**	0.015**	0.014**	0.057*	0.056*	0.054*
	(0.004)	(0.004)	(0.004)	(0.025)	(0.026)	(0.026)
Observations	140	140	140	140	140	140
R-squared	0.403	0.390	0.403	0.265	0.577	0.590
F for weak id		5.794	177.4		5.705	89.52

$**$ $p < 0.01$, $*$ $p < 0.05$, $+$ $p < 0.1$

Country-cluster-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Constant is included, not reported.
In (2) and (5), instrumented are CIT_Rt_i PIT_Rt_i and PIT_Prog_i. In (3) and (6), only CIT_Rt_i is instrumented.

[표 4-1] 가처분소득 지니 회귀분석 결과, OECD, 2000-19

VARIABLES	(1) disp OLS	(2) disp IV	(3) disp OLS	(4) disp IV	(5) disp OLS	(6) disp IV	(7) disp IV
CIT_Rt_i	0.010	-0.059	0.041	0.007	0.039	0.006	-0.006
	(0.126)	(0.083)	(0.116)	(0.095)	(0.118)	(0.096)	(0.087)
PIT_Rt_i	-0.126	-0.069			-0.072	0.025	-0.073
	(0.076)	(0.064)			(0.123)	(0.077)	(0.061)
PIT_Prog_i			-0.451*	-0.448*	-0.267	-0.506+	-0.212
			(0.205)	(0.227)	(0.339)	(0.278)	(0.228)
OPEN_G_i	-0.047*	-0.048**	-0.040*	-0.042**	-0.043*	-0.041**	-0.045**
	(0.019)	(0.008)	(0.017)	(0.008)	(0.019)	(0.009)	(0.008)
PENSION_i	-0.730*	-0.758**	-0.724*	-0.716**	-0.713*	-0.721**	-0.715**
	(0.300)	(0.136)	(0.299)	(0.136)	(0.298)	(0.138)	(0.132)
Observations	140	140	140	140	140	140	140
R-squared	0.379	0.369	0.379	0.378	0.386	0.373	0.384
F for weak id		50.49		45.21		27.85	156.2

$**$ $p < 0.01$, $*$ $p < 0.05$, $+$ $p < 0.1$

Country-cluster-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Constant is included, not reported.

In (2), (4), and (6), instrumented are CIT_Rt_i, PIT_Rt_i, and PIT_Prog_i. In (7), only CIT_Rt_i is instrumented.

[표 4-2] 시장소득 지니 회귀분석 결과, OECD, 2000-19

VARIABLES	(1) mkt OLS	(2) mkt IV	(3) mkt OLS	(4) mkt IV	(5) mkt OLS	(6) mkt IV	(7) mkt IV
CIT_Rt_i	-0.022	-0.040	-0.005	-0.004	-0.002	-0.009	-0.002
	(0.106)	(0.077)	(0.108)	(0.089)	(0.103)	(0.088)	(0.081)
PIT_Rt_i	0.042	0.070			0.079	0.115	0.079
	(0.063)	(0.059)			(0.093)	(0.071)	(0.056)
PIT_Prog_i			0.020	0.024	-0.182	-0.243	-0.183
			(0.182)	(0.211)	(0.286)	(0.256)	(0.212)
OPEN_G_i	-0.006	-0.006	-0.007	-0.007	-0.003	-0.002	-0.003
	(0.009)	(0.007)	(0.010)	(0.008)	(0.010)	(0.008)	(0.008)
PENSION_i	0.328	0.311*	0.353	0.351**	0.340	0.329**	0.340**
	(0.293)	(0.125)	(0.291)	(0.126)	(0.293)	(0.127)	(0.123)
Observations	140	140	140	140	140	140	140
R-squared	0.076	0.072	0.068	0.068	0.081	0.078	0.081
F for weak id		50.49		45.21		27.85	156.2

$**$ $p < 0.01$, $*$ $p < 0.05$, $+$ $p < 0.1$

Country-cluster-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Constant is included, not reported.

In (2), (4), and (6), instrumented are CIT_Rt_i, PIT_Rt_i, and PIT_Prog_i. In (7), only CIT_Rt_i is instrumented.

3.6 소득분배 회귀분석 결과

- 법인세율은 시장소득 지니, 가처분소득 지니와 상관관계가 없음
- 개인소득세 누진도는 가처분소득 지니와 음의 상관관계
- 개방도는 가처분소득 지니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방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에서 저축률 하락으로 인한 성장률 저하를 걱정할 필요가 작아져 보다 적극적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 (Weil 2009, page 392).
- 연금지출은 가처분소득 지니와는 음이 상관관계를, 시장소득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됨.

4. 재정정책 발전 방향

1. 중장기 재정건전성 견지와 재정규모 확대
   - 재정건전성 견지를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2%이내로 억제
   - 재정준칙 도입. 선언적 의미가 오히려 큼.
   - 재정건전성을 견지하면서 재정 규모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기반을 조성. 재정수입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기업부담분 사회보장세 등을 인상.
2. 재정 수입의 확충과 구조 개선
   - 중장기 재정안정화을 위해 스웨덴 연금개혁 벤치마크하여 연금을 개혁.
     - 스웨덴 1998년 연금개혁의 원칙 "세대간 공정성, 소득집단간 공정성 제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생애소득과 연계"
     - 연금개시 연령 상향 조정, 개인연금 추가 가입 강제, 확정급여에서 명목확정기여형으로의 개선
   - 소득세 누진성 제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적용 기준 소득을 10억에서 5억으로 조정)
   - 기업부담분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인상
   - 법인세 국제경쟁력 유지 및 국제 공조 강화
   - 부가가치세의 인상. 단,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을 유지.

4. 재정정책 발전 방향 - 계속

3. 재정 지출의 확대와 구조 개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초중등과 연계된 대학재정지원을 지원.
     - 초중고 단계에서 교육감 및 초중고에서 대학 진학시 국가장학금 수여 대상자를 선정 + 국가장학금에 간접비 + 대학 재정지원 사업들중에서 대학 혁신, 교육, 산학, 특정 산업 관련 재정지원은 대폭 정리 (대학원생 연구지원을 포함한 연구지원은 유지) +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들의 자신들의 모교 초중고에서 학습 및 생활 도우미 활동
   - 복지 확대 및 구조 개편
     - 사회서비스 중심 복지 확대, 교육, 훈련, 돌봄, 주거, 급식, 돌봄 등
     - 부모급여 확대 및 정착 (정책 목표와 직접 연계된 지원 형태가 바람직)
     - 기초연금 단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유지.
   - 적극적노동시장정책 확대
   - 경제사업 분야 축소

References

- 이영. (2021) 국가별 데이터를 이용한 조세구조, 성장 및 분배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경제포럼, 14(1).
- 이영, 신광영, 박철성. (2022) 성장, 일자리,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 노동정책 방향.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재정학회.
- Alderson, A. S., and Nielsen, F. (2002). Globalization and the great U-turn Income inequality trends in 16 OECD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7(5), 1244-1299.
- Aronson, J.R., Johnson, P., Lambert, P.J., 1994. Redistributive effect and unequal tax treatment. *Economic Journal* 104, 262–270.
- Barro, R. J. (2000). Inequality and Growth in a Panel of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 Growth*, 5(1).
- Card, D., Lemieux, T., and Riddell, W. C. (2003). Unionization and wage inequality a comparative study of the US, the UK, and Canada. Retrieved from
- Devereux, M. P., and Loretz, S. (2013). What do we know about corporate tax competition? *National Tax Journal*, 66(3), 745.
- Gustafsson, B., and Johansson, M. (1999). In search of smoking guns What makes income inequality vary over time in different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5-605.
- Jens, Arnold, Bert Brys, Christopher Heady, Åsa Johansson, Cyrille Schwellnus,and Laura Vartia (2011). Tax Policy For Economic Recovery and Growth, 121 *Economic Journal* F59-F80.
- Jeon B. Philip and Young Lee (2020), Two-way Causality and the Slope of the Great Gatsby Curve Evidence from US Regional and Cross-country Data, 재정학연구, vol.13, no.3, 통권 106호 pp. 155-192
- Jeong, H. (2020). Productivity Growth and Efficiency Dynamics of Korean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The World Bank.
- Lee, Young. (2020). Competition in Corporate and Personal Income Tax Evidence from 67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Korean Economic Review*, 36, 101-133.
- Lee, Young and Roger Gordon (2005). Tax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89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027-1043.
- Weil, David (2009). *Economic Growth*, Pearson International Edition.